

정치인 자서전의 진실과 허구

사실기록보다 자기현시 많아 경험의 진가 제대로 전달 못해

김광웅

서울대학교수 · 행정학

남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뭐가 남기고 싶어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 단지 이름 석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어떤 이는 만년에 여러곳을 다니며 적어놓은 일기 비슷한 내용을 자가출판하여 知인들에게 돌린 적이 있다. 또 어떤 뼈대있는 집안에서는 고인이 된 집안 어른에 관한 기록들, 유학시절의 이야기며 회곡 원고 등 여러 기록들을 모아 극히 제한된 부수만 출판하고 가족 친지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情調가 아닐 수 없다.

기록은 사사로운 것도 소중하지만 공적인 것일수록 필요한 메시지가 많아 유용하다. 흔히 접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개인의 기록이긴 하지만 공적 경험을 담고 있는 경우로 정치인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그래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 정치가의 꿈을 키우는 정치지방생들은 물론이지만 일반독자 중에도 관심따라 정치가의 회고록을 읽는 경우를 본다. 또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 중에도 어느 특정인물을 연구하기 위해 그의 자서전은 물론 서간집이나 그밖의 공공기록의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역사적인 인물은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연구의 접근방법 또한 생존한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면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그에 관련된 남아 있는 기록을 분석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적나라한 자기내면의 세계를

자서전을 토대로 특정 인물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치가 크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값지게 되려면 자서전은 본질적으로 저자의 내면세계가 적나라하게 토로된 것이어야 한다. 루소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은 그런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자서전은 통상 자신의 생애나 정신적 성장 과정을 설화식으로 기술하게 되는데 그 안에 고난과 성공의 역정을 회상하는 내용이 담긴다. 문학쪽에서는 저자의 심경을 더듬는다하여 고백문학의 장르로 분류하기도 한다. 루소의 「참회록」을 근대소설의 원류라고 일컫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이기도 하다. 문학가들의 자서전

으로는 괴테의 「시와 진실」이 있고, 톨스토이의 「유년시대」가 있으며 고리끼의 「나의 대학」 등이 널리 읽히고 있다.

자서전중에 오래된 것으로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을 꼽는다. 갈릴레이의 「시인과의 대화」도 오래된 자서전 중의 하나이다. 자서전은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써서 프랭클린, 비스마르크, 간디, 네루 등을 꼽을 수 있고, 현존하는 서양의 정치지도자들도 예외없이 회고록을 남기고 있다. 미국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자서전을 남기고 있다. 문학과 정치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중에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이는 길이 회자되는 자서전을 썼다.

자서전이 고백의 형식으로 내면의 세계를 밝히는 것이라는 연원은 로마제국때부터 시작된 종교분야의 자서전때문이다. 앞에 소개한 아우렐리우스의 그것이 그 예이다. 성 어거스틴의 감동어린 「고백」도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기에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들 초기 기독교계의 작품 이후 르네상스까지 유럽에서는 그리 많은 자서전이 출판되지는 않았다.

현대판 자서전의 효시는 16세기 이태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당시 발간된 계몽 칼단의 「De Vita Propria Liber」는 의사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베네베누토 셀리니의 찬란한 삶을 기록한 자서전은 조각가로서의 생을 유감없이 밝히고 있다. 자서전이 쏟아진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고, 여러 분야에서 일기 형식을 곁들여 출판되었는데 철학자 허버트경의 자서전같이 정치적 이유와 개인적 사정으로 백년이 지나서야 햇빛을 본 경우도 있다.

영어로 남겨지기 시작한 자서전은 대개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종교적 내지는 고백적 수기. 연극적 전기 및 철학과 문학적 자전 등이 그것이다. 실라스 토드, 죠지 벨라미, 그리고 데이비드 흄 등이 각각의 형식을 대표하는 자서전을 남긴 사람들이다. 미국쪽에서 시작된 자서전 쓰기의 습관은 18세기에 들어와서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간결하고 성실한 필체로 명징같은 작품을 펴냈다. 후세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자서전으로 루소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영적 계시를 곁들여 명료한 화법으로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해서 비평가들로부터 단어감각이

탁월한 ‘자서전의 황태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밀의 자서전과 더불어 철학자 죠지 무어의 작품도 손꼽히는 것중의 하나이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군인들의 자서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에드먼드 블룬멘의 「전쟁의 기초」같은 것은 오래된 명저중의 하나이다.

정치인들의 자서전이 남겨지기 시작한 것은 그 후의 일로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루이 14세에 이어 나폴레옹 그룹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졌다. 정치인들의 자서전은 금세기에 와서 활발해 서양의 웅만한 정치지도자는 회고록, 일기, 서간문 등 전기를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전 한국을 다녀간 보리스 옐친도 성장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담은 「고백」이라는 수기를 내놓고 있다. 여기서 그는 스페르트로프스크 주위원회의 제1서기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 시위위원회 제1서기, 그리고 모스크바 인민대의원선거에서 당기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 협의회 대표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옐친은 한 때 고르바초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적도 있다. “...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총회에서 고르바초프를 옹호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렇다. 나의 영원한 논적, 어중간한 일반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지금은, 적어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날지도 모를 차기 당대회까지는, 고르바초프는 당의 결정적 붕괴를 막아줄 유일한 인물인 것이다”라고 자서전의 마지막 장은 기록하고 있다. 같은 러시아의 현존하는 인물로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의 자서전, 「어둠의 역사를 헤치며」도 당대의 고르바초프와의 관계를 소상히 적고 있다.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루지야의 ‘시골뜨기’가 고르바초프에 의해 일약 소련방의 외무장관으로 발탁된 후 냉전을 청산하는 데 눈부신 활약을 한 그는 “비뚤어진 이데올로기의 거울이 국민들에게 공포와 적개심을 주입시키고 기존의 사물의 질서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무엇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면서 적의 실제 모습을 어리석음 정도로 왜곡시켰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참회보다 진실들

지난 달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선되면서 12년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미국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바 있는 지미 카터는 자서전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가난한 농촌생활을 거쳐 해군사관학교를 마치고 장교로 복무한 후, 다시 농부로 돌아와 전도사도 하면서 주상원의원에 당선되고 이어서 주지사를 거쳐 백악관 주인이 되기까지의 생활과 사상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다. 우리와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로 줄다리기를 한 기억이 생생하기도 한 그의 성품을 자서전을 통해 잠시 엿보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원칙에 대해 타협할 줄을 모른다. ... 내가 만난 사람중에서 가장 웅변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백발의 장로인 벤 포슨 죠지아주 국무장관이 한번은 나를 ‘남부 죠지아의 거북같은 고집불통’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적고 있다. 출신 배경으로 말하자면 카터와 그리 다를 바 없는 레이건은 맨발로 꿈의 계단을 올라간 구두장수의 아들로서 세계권력의 정상에 의지에 찬 꿈으로 정복한 인물이다. 그 후 레이저노믹스에 관한 평가는 고하간에 그는 「미국 생활」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백악관 첫날 아침의 감회를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는 모르나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나의 첫날 아침은 나에게 놀랍도록 매우 낮은 것이었다. 나는 주지사였을 때의 일을 생각했다. 책상위에는 그날의 약속 예정표가 올라 있었고 내각, 참모진, 의회 의원들과의 면담 예정들이 들어 있었다. 문밖에는 에드 미즈, 마이크 디버, 그리고 새크라멘토 때 같이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때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나는 주정부가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겪는 최악의 재정적 위기 때 새크라멘토로 왔었고 이번에는 국가가 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난국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때에 백악관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프랑스 정계에 보수와 혁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매료시킨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은 「권력과 인생」이라는 자서전에서 閣議의 형식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한정각의’가 이름에 걸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는데 힘썼다. 그것은 우선 엘리제궁 참모진도 포함해서 전문가를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내가 그것을 고집한 것은 물론 인원수 문제도

이유가 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칫하면 관공서의 수뇌들이 정치가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후견인적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러한 회합에 대해서도 나에게 불쾌한 기억이 있다. 참석하고 있는 고관들이 각료들간의 토의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라고

과거의 지도자들이 종교적 고백의 형식을 빌어 자서전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존하는 지도자들은 별 과장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시대와 현대사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파도치는 진짜 민의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자서전을 내는 일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듯하다. 자신이 직접 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남이 써서 그의 인물됨을 정리한 경우가 가끔 있다. 이승만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기록에 남아 있지만 로버트 오리버가 펴낸 「이승만 비록」에는 하지 군정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정하고 있는 대목이 눈을 끈다.

“이 시기와 그 후에도 계속된 모든 그의 공적 성명서는 밑바닥에 깔린 원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국국민의 운명을 강조하고 있소. 그의 한국 통치 초기부터 서울에서 전해진 대부분의 미국 언론보도는 버섯처럼 솟아난 정당의 수가 50에서 400개에 이르고 있다고 일반에게 일깨워 주었소. 한국인들은 이러한 허위에 몹시 분개하여 시정하려고 하나 발언권이 없는 실정이고. 미군정의 사령관이나 기타 고위 장교가 공식으로 이러한 보도의 진상을 부인하는 경우가 단 한번 없었소.”

이승만은 이 밖에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 개혁을 역설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계층에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靑南에 대항하여 싸우다 객지에서 병사한 조병옥은 윤형남이 쓴 「나의 회고록」에서 자유당에 대해 “공당적 원리와 목적을 무시하고 이대통령의 주장에만 추종하는 정부종당적 존재로서 사사건건 다수당의 횡포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통 야당인 민주당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조직은 단순히 자유당과 대항하기 위하여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즉 민주당은 자유당과 대항하기 위하여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을 조직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념문제는 여당의 비민주적인 처사를 그저 묵종할 수 없어 무엇보다 민주세력의 급속한 단결이 자유당과 대항함에 있어서 급선무적 문제라고 하여 기본이념의 규정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보수적 민주당으로 발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김구의 「백범일지」는 후세에 두고두고 읽히는 자서전중의 하나이다. 백범은 이 나라에 수백년동안 계속되어온 양반정치가 일종의 계급 독재라고 매도하고,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 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의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법이다”라고 이기심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종교인이자 교육자였던 雲石 장면은 회고록 「한말의 밑말이 죽지 않고는」에서 부통령이었던 당시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어떤 사명감이나, 진실된 신념을 떠나서 다만 인간적인 욕망만으로써 정계에 투신하였다고 하면은 모르되,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한 하나의 병사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바에는,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탄압과 싸우면서 나를 선출해 준 것을 생각해서, 그러한 암살음모 따위에는 개의치 않고…”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 전해 1958년 海公 신익희와 한강 모래사장에서의 유세장면을 회고하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날 선거에서 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단면을 보여준다.

“그날(5월 3일)은 사실 우리의 예측 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시민이 운집하여 유사 이래의 기록을 이루었던 만큼, 선생은 고맙고도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벽찬 흥분과 책임감에 놀리는 것 같았다. 그날 선생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단 주변의 까마득한 청중들을 둘러 보던 중, 인도교 위와 강 건너 후석동 강 안쪽의 새까만 군중을 뒤돌아 보며, 운석, 저기까지도 저렇게 많이 모여 있구려! 이 파도치는 진짜 민의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단 말이요 하시며, 그날은 유달리 더 감격적인 장시간의 강연을 하였다.”

운석은 전쟁때문에 갖가지 시련을 겪는 심정을 또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얘기지만, 제2 공화국 초창기에 고개를 든 민주당 자체내의 보이지 않는 세력다툼을 제1선에서 당하는 나로서는 지긋지긋한 시련이었다. 내각책임제라면 연대책임하에 생사라도 같이 할 정치적인 기본자세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분당되어 버려 협조는 커녕 비난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와대는 신민당 인사들을 끼고 장정권의 타도를 공공연히 주장하기에까지 사태가 돌아가니 나라가 잘 되어갈 리가 없었다.”

지금으로 치면 건국초기에 해당하는 당대 정치인들의 자서전은 이들 말고도 常山 김도연의 그것을 비롯해서 몇편이 더 있다.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기현시적 표현 많아

당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자서전을 남기고 있는가. 내용이나 품위로 보아 과거의 정치지도자나 외국의 지도자들이 남긴 것보다 아직은 덜 세련되어 있고 에피소드가 적어 내용이 진솔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이번 제 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김영삼은 「나와 조국의 진실」에서 “70년대가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말과 표정을 빼앗긴 연대였다면, 80년대는 잃었던 말과 인간성을 되찾는 연대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 「김영삼 2000년 신한국」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깨끗한 정치’ ‘열린 정치’를 역설하면서 “중요한 국사의 결정과정이 유리병 속에 서처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라”고 말한다. 김영삼의 저서는 자서전의 전형에서는 좀 벗어난 것으로 주로 규범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김대중은 「민중의 새벽을 바라보며」에서 민주주의 실패를 유교나 역사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80년대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고 말 것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고 예언하고 있다. “아버지의 당부” 등 유년시절 부모와의 관계도 기록해 비교적 회고록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밖에도 김대중은 옥중서한을 비롯해서 많은 저서를 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통해 삶과 이상을 밝히고 있는 정주영은 다른 두 후보의 규범적 주장과는 달리 비교적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술회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적고 있다.

“그래도 박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태국에서의 경험과 토목 기술자로서의 나를 그분은 믿었고 그 신뢰가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그분과 함께 기어이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말자는 내 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8년 2월 1일,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 첫번째 톨게이트 근처에서 발파음을 터뜨려 기공식을 가졌다.”

좀더 많은 인용을 하면서 이 나라의 대표적 정치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야 하겠지만, 줄여서 논평을 하자면 앞에서 인용한 외국의 정치인들이 사실을 적시하고 자기 계시를 하면서 고백의 형식을 빌어 술회하는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사실의 기록보다 자기 현시적 표현이 많고 규범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편이다. 그리고 본인의 글이 아닌 남의 글솜씨를 빌리는 경우가 있어 귀한 경험의 진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의 예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시사받고자 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미국의 교육과 연결시켜 분석한 글은 부와 미덕의 관계, 공리주의, 그리고 민주사회에 관한 그의 견해를 미국인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비단 정치인의 자서전만이 아니라 이즈음 활발히 발간되는 기업인의 자서전도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전파하는 데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서전이 교육만이 아니라 연구자료로서 널리 활용되는 가운데 자서전의 내용과 본인의 실천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는 일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도 이 점을 고려하여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자서전은 한 개인의 단순한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가 되고 또 문헌버린 과거의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